



제목	루미시초
발행언어	한국어
발행처	늘봄
발행일	2014. 9. 1.
저자	Rumi 이현주 옮김
출판도시	서울
페이지수	146
ISBN 또는 ISSN	978-8965550327

내용 요약

삼스가 루미 앞에 홀연히 나타나 몇 가지 원론적인 질문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이후 거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한다. 두 사람의 관계가 워낙 긴밀했기 때문에 루미의 제자들조차도 삼스를 루미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애썼다고 한다.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난 지 3년쯤 되었을 때, 삼스는 루미 앞에 나타났을 때처럼 홀연히 사라졌다. 그래서 루미는 2년 동안 삼스를 찾으러 다녔다. 그러던 어느 날 루미는 불현듯 “나는 왜 그를 찾고 있는가? 내가 바로 그인 것을/ 그의 본질은 나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/ 내가 나를 찾고 있었구나!”라는 깨달음을 얻었다. 같은 맥락에서 이 책 표지에 다음과 같은 시구가 적혀있다: ‘지금 여기’에서 ‘하나인 몸’을 이루고 있다는/ 진실을 언제쯤 깨우칠 것인가? / 그날이 너무 멀지 않기를.../ 이미 어쩔 수 없는/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...

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각각 2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고 제4장에는 21편의 시가 들어있다. 각장의 제목은 해당 장에 들어있는 시 제목인데, 그렇다고 해서 최초 등장 시의 제목이 장 제목이 되는 것은 아니다. 제1장의 대표 시 「내가 당신이라고 말하라」에서는 ‘상승 그리고 추락. 있는 것/ 있지 않은 것. 당신’이라는 시구가 인상적이고, 제2장의 시 「모든 것을 사랑에 걸어라」에서는 ‘반쪽 마음을 가지고는/ 이전에 들지 못한다.’가 눈에 띄며, 제3장의 대표 시 「사랑의 길」에서는 ‘그들(새들) 떨어진다. 떨어지고 또 떨어진다/ 그래서 날개가 주어진 것이다’에 눈이 간다. 그리고 제4장 「앞에 아무것도 없다」에서는 ‘선과 악은 한데 섞여 있으니, 만약 이 둘을/ 함께 지니지 않는다면 그대는 우리와 소속이 다르다.’는 것이 마음에 와 닿는다.